

아, 학교우유급식



배 정 식
협회 상무

학교우유급식 제도화는 해묵은 과제입니다. 우유급식을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우유급식율은 50%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학생 수는 매년 감소추세입니다. 결국 우유급식율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원유량도 계속 감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마당에 최근 우유급식이 입찰로 전환되면서 덤핑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우유급식단가는 시중가의 절반수준인 무상우유급식 단가를 기준으로 고정단가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 교육청에서 최저가 입찰로 전환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저가에 덤핑입찰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보조 무상우유급식 단가가 430원임에도 불구하고 낙찰단가가 330원, 350원 심지어 270원에도 낙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 학교우유급식을 입찰로 전환토록 조치하면서 덤핑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우유급식의 본래 취지는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들의 체위향상과 올바른 우유음용 습관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우유 소비기반 확충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농식품부는 학교우유급식 지침 개정으로 고정단가제를 실시해 오고 있고, 그 배경에는 이전 우유급식 단가상한제가 유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학교우유급식 품질 불신과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잔무가 늘어나 우유급식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워낙 싸게 공급되다 보니 학교나 학부모들의 우유품질에 대한 불신도 생겨나기도 하구요. 소위 물탄우유, 시중우유와 다른 저급우유라는 잘못된 내용들이 떠돌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업체는 유업체대로 학교우유급식 단가가 낮게 형성되다 보니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고, 방학기간 중에는 제고부담까지 떠안아 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우유급식은 낙농산업 기반유지에 매우 중요한 수요처로 원유수급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학교급식 연간 원유소비량은 백색시유 소비기준으로 약 10%수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제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도 FTA시대에 낙농산업기반을 유지시킬 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단순 입찰 가격경쟁으로 전환될 경우 도농간 가격격차가 발생되어 공급여건이 어려운 농촌지역 학생들의 우유급식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덤핑공급으로 저가에 낙찰이 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공급업체가 손해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급식단가의 인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도농간 가격격차는 더욱 커질 우려가 높습니다.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유가격 담합 조사시 우유급식 고정단가제 준수와 관련된 내용을 '부당 공동행위'로 간주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쉽게 우유급식 입찰전환 문제와 관련해 행정지도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칫 학교우유급식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낙농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학교우유급식단가를 우리나라처럼 시중가 절반가격으로 공급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성공적 정부정책인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상상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